

# EV 시대에도 하이브리드차 매력 여전

## 프리우스-아이오닉-니로 등 13종 연비, 편리함 최고 수준

전기차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휘발유 엔진의 매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EV는 적은 부품수, 즉각적인 가속, 주유소를 건너뛰는 편리함 등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충전소를 찾아 헤매거나 200마일마다 한 시간씩 커피를 마시며 충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은 여전히 놀라운 연비를 뽑아내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는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해 충전이 필요 없는 대안으로 각광받는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현존하는 최고 연비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한다.

▶**도요타 프리우스** : 하이브리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프리우스는 '절약'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최신 모델은 복합 연비가 최대 57MPG에 달하며, 장거리 운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20년 넘게 다듬어진 시스템과 우수한 내구성 덕분에 택시·우버 기사들의 최애 차량으로 꼽힌다.

▶**혼다 인사이트** : 세련된 디자인과 48MPG의 복합 연비를 제공하는 인사이트는 '조용한 강자'로 불린다. 도요타보다 덜 튀지만 정숙한 승차감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강점이다.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 복합 연비 58MPG라는 클래스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EV의 MPGe 수치에 맞먹는 연비를 자랑한다.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 SUV급 공간과 53MPG의 연비를 동시에 제공한다. 가족과 레저를 모두 만족시키는 실용적인 선택지다.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 : 전통적인 세단의 신뢰성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50MPG의 복합 연비를 기록한다.

▶**포드 매버릭 하이브리드** : 픽업트럭이 40MPG를 달성하는 '게임 체인저'다. 소형 트럭 시장에서 연비와 적재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혁신적 모델이다.

▶**렉서스 UX 250h** : 럭셔리와 연비를 동시에 잡은 SUV로, 43MPG의 효율성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 44MPG의 연비와 넓은 실내 공간, 안정적인 승차감을 갖춘 중형 세단의 대표 모델이다.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 52MPG를 기록하며, 신뢰성과 연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드라이버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닛산 알티마 2.0L VC-터보 (중고)** :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가변 압축비 터보 엔진으로 32MPG를 달성하며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마쓰다3 2.0L** : 30MPG를 기록하며 연비와 주行的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전자에게 적합하다.

▶**쉐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중고차)** :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31MPG의 효율성을 갖춘 미국산 세단으로 중고 시장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폭스바겐 제타 TDI (중고차)** : 디젤게이트 여파에도 불구하고 40MPG 이상의 고속도로 효율성을 자랑하며, 장거리 운행에 강점을 보인다.

# LA 카운티 신차 판매 2.3% 증가

## 한국차 점유율 첫 10% 돌파 사상 최고

올해 상반기 LA 카운티의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현대·기아·제네시스 등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신차는 총 22만383대로, 전년 동기 21만5,448대보다 2.3% 늘었다. 차량 유형별로는 SUV와 트럭이 전체 판매의 69.7%(15만3,630대)를 차지해 대세로 자리잡았고, 승용차는 30.3%(6만6,753대)에 그쳤다.

국적별 시장 점유율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45.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 브랜드는 25.5%로 2.0%포인트 하락했고, 유럽 브랜드도 18.5%로 0.8%포인트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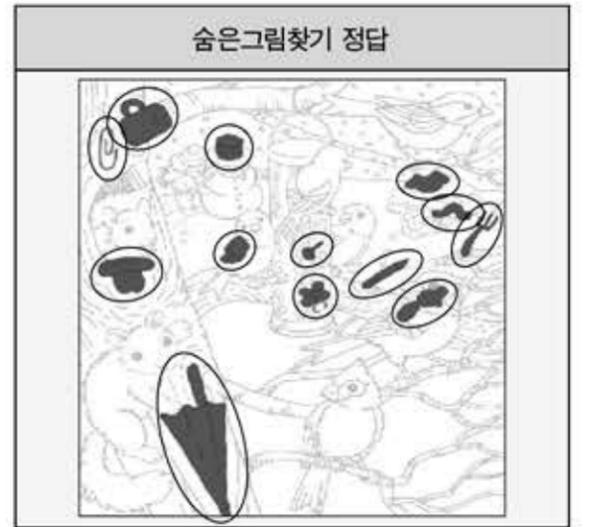
한국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10.1% 점유율을 기록, 전년(9.4%)보다 0.7%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판매량은 총 2만2,232대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현대차는 9,132대(전년 대비 5.9% 상승), 점유율 4.4%이었으며 제네시스는 1,452대(37.2% 상승), 점유율 0.7%이었다.

기아는 1만1,111대(12.9% 상승), 점유율 5%를 기록했다. 특히 제네시스는 인파티를 제치며 프리미엄 시장 입지를 강화했고, 기아는 포드·세불레·렉서스·닛산·수바루·아우디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해 점유율 5%로 브랜드 순위 6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10위, 제네시스는 24위를 차지했다.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권은 도요타(17.6%)가 1위를 지켰고, 혼다(13.1%)가 테슬라(9.7%)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5.5%), BMW(5.1%), 기아(5.0%), 렉서스(5.0%), 포드(4.8%), 세불레(4.6%), 현대차(4.4%) 순으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모델별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 Y로 전체 신차의 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테슬라 모델 3(3.9%), 혼다 시빅(3.7%), 도요타 RAV4(3.6%), 도요타 캠리(3.5%), 혼다 CR-V(3.5%), 도요타 타코마(2.4%), 도요타 코롤라(2.1%), 혼다 어코드(1.9%)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한국 모델 중에서는 기아 스포티지와 K4(포르테)가 각각 19위, 20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LA 카운티 신차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46.6%에 달했다. 전기차가 22.5%, 하이브리드가 19.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4.5%를 차지하며, 판매 차량 10대 중 5대가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T. 714.872.9377